

소액생계비대출 현장 간담회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모두 말씀

2024. 6. 12. (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 I. 인사 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작년 3월말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에 즈음하여  
서민금융지원의 현장을 방문하고  
고객분들과 직원분들을 만나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 II. 서민금융의 역할

---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서민금융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그 특성상\* 자금의 공급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저신용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금융 애로를 완화하는 역할입니다.

\* 저신용·저소득층의 자금수요에 비해 민간 금융회사의 자금공급이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

금융의 궁극적인 역할이  
자금의 공급과 수요를 이어주는 중계기능이라 한다면,  
서민금융은 그 특성상  
민간 금융회사가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기는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와 같은  
‘시장 실패’(market failure)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정책서민금융이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상환여력이 취약한 서민,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공급이 더 크게 위축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근 이러한 정책서민금융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좀더 시계(視界)를 넓혀 본다면,  
‘경제성장’과 ‘불평등’(inequality) 측면에서  
서민금융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기술발전’과 ‘세계화’가  
글로벌 경제의 생산성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기술진보가  
제조업과 같은 중간계층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직업’과 ‘소득’의 ‘양극화’가 진행된  
하나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진 산업과  
저숙련 근로자들이 ‘구조조정’과 ‘실업’이라는  
어려움을 겪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서민금융정책이  
금융의 ‘포용성’(inclusiveness)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 Ⅲ. 소액생계비대출 성과 및 향후계획

---

이와 같은 측면에서 오늘 논의하게 되는  
소액생계비대출 제도는  
금융회사의 기부금을 활용하여 서민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상생금융’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3월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1년여 기간 동안(~24.5월말)  
총 18만2천여명에 대해 1,4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저신용층을 비롯하여,  
일용직,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같이  
민간 금융회사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도  
소액이나마 생계비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신용 하위 10% 이하 비중 : 92.7%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 비중 : 69.1%

정부는  
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가  
서민층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당초 소액생계비대출 제도는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생에 단 한 번만 이용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이와 같은 좋은 제도를  
보다 낮은 금리에 다시 이용하고 싶다는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소액생계비대출 제도를  
다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대출을 다시 이용할 때  
이전 대출의 최종 금리(최저 9.4%)를 적용하여  
보다 낮은 금리에  
자금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 금리 15.9% → 금융교육 이수시 15.4%(△0.5%p)

→ 6개월 성실상환시 12.4%(△3%p) → 추가 6개월 성실상환시 **9.4%**(△3%p)

아울러,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분들의  
근본적인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예 :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 등을 대상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와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할 예정

※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 등 서민금융 이용자의 상환능력 제고를 위해  
금융-고용-복지 연계 강화를 위한 종합방안을 발표 예정('24.6월중)

## IV. 맺음말씀

---

많은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액생계대출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과  
이분들을 지원하고 계신 상담직원분들이  
말씀해주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